



한경 BUSINESS



회사채 시장에 새바람 부는 내막
경매서 채납 관리비는 누가 낼까
수명 연장과 투자의 상관 관계

다이어트 시장의 진화

상반기 일본서 뜬 히트 상품

'3D 올인' 전략, 수렁에 빠진 LG전자 구할까
'충격적 성장' 일군 IT 강자 애플 실적의 비밀
행운과 성공을 부르는 승자의 언어 법칙



값 3,500원



9 771228 444006
ISSN 1228-4440



중국, 저우산군도 경제신구 지정

홍콩 버금가는 신흥 항구도시로 부상 기대

김옥림 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 변호사

중국 저장성 북동부 항저우만 입구에 있는 저우산군도(舟山群島)는 139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중국 연해 최대의 군도다. 중국 전체 섬의 25.7%를 차지하는 저우산군도의 총면적은 1440km²로 서울의 2.4배에 달한다. 현재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우산군도는 국제 해운 노선의 중추다. 현재 중국을 경유하는 7개 국제 해운 항선(航線) 중 6개 항선이 저우산군도를 경유하고 있다. 저우산 해역에는 15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도(航道)가 13개, 30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도가 3개 있다. 또한 저우산군도를 기점으로 아시아의 주요 해운 중심인 한국의 부산, 일본의 나가사키, 대만의 가오슝,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500해리의 등거리 부채형 해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우산군도는 중국이 대륙을 벗어나 서태평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진기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저우산군도가 경제개발신구(新區)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저장성 지역이 들쭉고 있다. 국무원이 올 3월 초 저장해양경제발전시범지역계획을 발표할 데 이어 4개월 만이다. 이는 저장성의 해양 경제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저우산군도 개발신구는 상하이 푸둥개발신구, 텐진 빈하이 개발신구, 충칭 양강개발신구에 이은 중국의 4번째 개발신구가 되었다. 해양 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춰 조성된 국가급 개발신구는 저우산군도개발신구가 처음이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급 경제신구를 잇달아 조성하고 있다. 국가급 경제신구로 지정되면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공업용 토지 공급에 특혜를 주고 각종 인·허가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신천경제특구의 개발 성과를 창장(長江) 삼각주와 동부 연안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상업 허브로 상하이 푸둥개발신구를 조성했다. 이어 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 우주항공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과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중심의 텐진 빈하이개발신구를 육성 중이며 작년 6월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과 내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충칭 양강개발신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4번째 경제개발신구 … 해양 경제 메카로 개발

저우산군도 개발신구에 대한 중국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 저우산군도가 개발신구로 조성되면 홍콩에 버금가는 동부 연안의 신흥 항구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우산군도가 지리적으로 동부 연안에 있으면서 중국의 가장 큰 산업 지대인 창장(長江) 삼각주와 인접해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이를 물류 기지로 활용

하기 위해 중국 상품의 보관·운송·환적·가공·무역을 위한 종합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곳에 해양산업 시범 기지를 세워 해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장성은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저우산군도 개발신구의 건설을 추진해 3년 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10년 내 경제개발신구의 조성을 완성한다는 개발 일정을 내놓았다.

저우산군도 개발신구 지정은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으로 이어져 이곳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저우산군도 개발신구가 저장성 일대 해양 경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



중국은 저우산군도를 4번째 경제개발신구로 지정했다. 사진은 항저우에서 상하이로 가는 길이 36km의 항저우만 대교.